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2)(2) 뿌리 깊은 나무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작품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돼.

1. 등장인물의 특징 및 말하기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
2. 연출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
3. 각 장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
4.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 등



그렇다면 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갈래상 특징, 등장인물의 특징, 연출 방식 등을 알아야겠네요.

맞아. 중요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볼까? 이 작품은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시나리오야.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왕 이도의 의지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담긴 애민 사상을 주제로 하고 있는 글이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왕과 대립하던 가상의 비밀 조직을 등장시켜 보는 재미를 더했고, 이도의 성장 과정과 고뇌, 열정을 개성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금인 세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는 특징이 있어.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등장인물의 특징으로는 어떤 점들이 있나요?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 글에 나타난, '이도'를 중심으로 한 갈등 양상을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이야기할게. 먼저 '이도'는 글자가 있어야 백성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유생들과 관리들, 가리온이라는 인물은 이도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유생들은 새 글자를 쓰고 한자를 버리는 것은 유학의 도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관리들은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어 글로 교화하기 어렵다는 점, 백성과 소통하려면 관리의 수를 늘리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가리온’은 모든 백성들이 글자를 쓰게 되면 조선의 (신분)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단다.



넵. 그런데 이 작품이 시나리오라고 하셨는데, 이 작품의 어떤 부분에서 시나리오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작품에 드러난 시나리오의 특징은 선생님이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줄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영화,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함.	이 작품은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각색한 드라마 대본임.
장면(S#)을 기본 단위로 함.	각 장면에 장면 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소설과 달리 짧게 분절되어 있는 장면들이 모여 인물의 성격과 특징, 사건의 진행을 나타냄.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적음.	조선 시대 궁궐이라는 시·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시나리오의 특징을 보여줌. 또한 시위하는 유생들의 모습을 화면에 구현하라는 지시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을 덜 받는 시나리오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음.
특수 용어가 사용됨.	S#, cut, 몽타주 등의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되었음.



그리고 S#13~17 장면의 연출 방법과 S#59 장면의 연출 방법, 각각의 표현 효과도 잘 알아두도록 하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겠지?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AI 직전 보강 확인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작품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돼.

1. 등장인물의 특징 및 말하기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
2. 연출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
3. 각 장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
4.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 등



그렇다면 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갈래상 특징, 등장인물의 특징, 연출 방식 등을 알아야겠네요.

맞아. 중요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볼까? 이 작품은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_____야. _____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왕 _____의 의지와 _____와 _____에 담긴 _____사상을 주제로 하고 있는 글이지. _____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왕과 대립하던 _____의 _____을 등장시켜 보는 재미를 더했고, _____의 _____과 _____, _____을 개성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금인 _____의 _____인 면모를 부각시켰다는 특징이 있어.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등장인물의 특징으로는 어떤 점들이 있나요?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 글에 나타난, ‘_____’를 중심으로 한 갈등 양상을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이야기할게. 먼저 ‘_____’는 _____가 있어야 _____들과 _____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_____들과 _____들, _____이라는 인물은 이도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_____은 _____를 쓰고 _____를 _____것은 _____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_____들은 사람의 _____은 그 사람의 _____에 달려 있어 글로 _____하기 어렵다는 점, _____과 _____하려면 _____의 수를 늘리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_____’은 모든 _____들이 _____를 쓰게 되면 조선의 (_____) _____가 무너질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단다.





넵. 그런데 이 작품이 _____라고 하셨는데, 이 작품의 어떤 부분에서 _____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작품에 드러난 시나리오의 특징은 선생님이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줄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____, _____ 상영을 목적으로 함.	이 작품은 _____ 상영을 목적으로 각색한 _____임.
____(S#)을 _____로 함.	각 _____에 _____를 사용하였으며, 소설과 달리 _____되어 있는 장면들이 모여 인물의 _____과 _____, 사건의 _____을 나타냄.
____과 _____, 등 _____에 제약이 _____.	조선 시대 _____이라는 _____을 설정함으로써 _____의 _____이 _____시나리오의 특징을 보여 줌. 또한 _____하는 _____들의 모습을 화면에 구현하라는 지시도 등장인물 수에 _____을 _____시나리오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음.
_____가 사용됨.	____, _____, _____ 등의 _____가 사용되었음.



그리고 S#13~17 장면의 연출 방법과 S#59 장면의 연출 방법, 각각의 표현 효과도 잘 알아두도록 하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겠지?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2)(2) 뿌리 깊은 나무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이도(세종대왕의 이름)(주인공)는 왕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 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큼.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이도는 백성을 부추겨 사대 부의 권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대부들(반동 인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의 몇몇 학사들과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그러다 그 사실이 알려져 유생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 제16부 - (이 작품은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각색한 드라마 대본임. 전년도에 이어 글의 목적, 형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S#13] (장면 번호. 시나리오는 장면(S#)을 기본 단위로 함. S#13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나리오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 (낮) (공간적, 시간적 배경. / 시나리오는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적다는 특징이 있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등장인물 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혜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우리 글자 창제에 극렬히 반대하는 유생들과 신하들.)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혜강의 앞에 앉는다. (이도의 갑작스러운 행동. 시위하는 유생들을 피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는 적극적인 성격이 나타남.)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혜강: (역사 속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유생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역할을 함. 성리학자. 윗글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을 묻는 문제 중 '해당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리라'는 큰 목소리로 연기에 주세요.'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혜강의 입장과 관련하여 매년 선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 (중국 송대 주희가 체계화한 유학 이념으로,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됨.)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 (오랑캐)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종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반대 세력을 권력으로 억압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설득하려는 모습. 이도의 대응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전년도에 이어 출제되었습니다.)

cut. (영화나 드라마에서 각 장면의 구분 점을 뜻함. 또는 단순히 화면과 화면을 붙임으로써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편집 방식)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 자. 앞엔 혜강이 있다.

혜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사대주의 사상. 한자를 '유학의 도(道)'로 보고, 이도의 새로운 글자 창제에 반대함.) (화면은 '무' 자 보이며) (지시문)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한자 '싸울 무'를 '창 과'와 '그칠 지'의 결합으로 봄.)

이도: (보고)

혜강: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한자 ‘싸울 무’에 담긴 의미, 한자는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임.)이옵니다. **헌데……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혜강은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일이 유학의 도를 버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혜강의 입장과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도: …….(이도의 태도와 관련하여 매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혜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오, 없소.

혜강: **(그럼 그렇지.)**(지시문과 관련된 선지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यो. (하며 궤도로 간다.)**(‘이도’의 반박이 시작됨.)

cut. 궤도에 “作開言路 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터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혜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혜강은 임금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혜강: **(멈칫)**(정도전이 세우고자 한 한 재상 중심 국가의 이념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갈등의 배경이 되기에 이도가 정도전을 언급하자 모두 놀라 멈칫함. ‘이 부분을 통해 이도가 정도전을 언급하는 일이 유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모두: **(멈칫)**(당황함.)

이도: **요순 3대**(중국 고대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덕으로 천하를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전설적인 임금을 말함.)에는 **간관**(임금의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고 모든 벼슬아치의 비행을 규탄하던 관리)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혜강: …….

이도: 이는 말ियो.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점점 강한 목소리로)**(‘이도’는 백성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쉬운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이도’의 목소리와 어조가 강해지는 것은 이러한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무척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생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 ‘이 부분을 통해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글자를 만들겠다는 이도의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도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매년 선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글 모르는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 글자 창제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던 채윤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임금의 뜻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 드라마 대본에서는 인물의 시선 처리만으로 생각과 감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려 줌.)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오!**(‘이도는 백

성의 말이 관료를 거처면 왜곡, 편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삼봉**(정도전)은!

해강:(이도의 말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함.)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론을 띄워 주고 싶고.**(이도가 글자를 만들겠다고 판단한 이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이도의 말하기 방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본인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채윤: (보는 데서 cut.)

S#14 경북궁 일각 (낮, S# 14~16 **몽타주**(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화면. **촬영 기법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을 떼어 붙여서 긴밀하게 연결하는 편집 구성의 한 방법이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시나리오 용어와 관련하여 매년 선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곳에 관리들 모여 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새로운 글자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 ①. **글자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들과 그 입장을 제시하는 선지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새로운 글자 창제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S#14에서 '장은성'은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반대 이유와 관련된 문제가 전년도에 이어 출제되었습니다.) (cut.)

이도: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선비들에게 새로운 글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cut.)

S#15 성삼문 술 마신 곳 (낮)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이순지(새로운 글자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 ②): **《삼강행실도》**(조선 시대에 설순 등이 왕명에 따라 펴낸 책.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들을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함.)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cut.)

이도: **(버럭) 네놈이 선비냐? 네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백성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로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였으나 그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신하의 말을 들은 세종의 반응. 신하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버럭' 화를 내는 세종의 모습이 드러남. / 이도가 중시하는 것: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 백성이 임금에게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 임금과 백성이 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하는 것. **이도의 생각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cut.)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2)(2) 뿌리 깊은 나무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앞부분의 줄거리] **이도(세종대왕의 이름)(주인공)**는 **왕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 다.(____을 ____는 마음이 큼.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이도는 백성을 부추겨 사대부의 권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대부들(반동 인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의 몇몇 학사들과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그러다 그 사실이 알려져 유생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 제16부 -(이 작품은 ____을 ____으로 각색한 ____임. 전년도에 이어 글의 목적, 형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S#13(____. ____는 장면(S#)을 ____로 함. S#13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나리오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 (낮)**(공간적, 시간적 배경. / 시나리오는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적다는 특징이 있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등장인물 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혜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우리 글자 창제에 ____하는 ____과 ____들.)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는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혜강의 앞에 앉는다.(____의 갑작스러운 행동. ____하는 ____들을 피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는 ____인 성격이 나타남.)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혜강:(역사 속 실제 인물이 아닌 ____의 인물로 ____들의 ____을 대표하는 역할을 함. 성리학자. 윗글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을 묻는 문제 중 '해당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리라는 큰 목소리로 연기에 주세요.'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혜강의 입장과 관련하여 매년 선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중국 송대 ____가 체계화한 ____이념으로, 조선의 ____이 됨.)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____)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종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____을 ____으로 ____하지 않고 ____으로 ____하려는 모습. 이도의 대응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전년도에 이어 출제되었습니다.)

cut.(____나 ____에서 각 장면의 구분 점을 뜻함. 또는 단순히 ____과 ____을 ____으로써 ____에서 ____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____)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 자. 앞엔 혜강이 있다.

혜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____사상. 한자를 '____의 (道)'로 보고, ____의 새로운 ____에 반대함.) (**화면은 '무' 자 보이며**)(____)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사옵니다.(한자 '싸울 ____'를 '창 ____'와 '그칠 ____'의 ____

으로 봄.)

이도: (보고)

해강: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한자 ‘싸울’에 담긴 의미, 한자는 하나하나의 _____가 언어의 _____과 상관없이 일정한 _____을 나타내는 _____임.)이옵니다. **헌데……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해강은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일이 유학의 도를 버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해강의 입장과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도: …….(이도의 태도와 관련하여 매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오, 없소.

해강: **(그럼 그렇지.)**(지시문과 관련된 선지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시오. (하며 궤도로 간다.)**(‘_____’의 _____이 시작됨.)

cut. 궤도에 “作開言路 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해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해강은 임금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해강: **(멈칫)**(_____이 세우고자 한 _____의 이념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_____의 _____이 되기에 _____가 _____을 언급하자 모두 _____ 멈칫함. ‘이 부분을 통해 이도가 정도전을 언급하는 일이 유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모두: **(멈칫)**(당황함.)

이도: **요순 3대**(중국 고대의 _____과 _____을 아울러 이르는 말. 덕으로 천하를 다스려 _____를 이루었던 전설적인 임금을 말함.)에는 **간관**(임금의 _____을 고치도록 말하고 모든 벼슬아치의 _____을 _____하던 관리)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해강: …….

이도: 이는 말이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점점 강한 목소리로)**(이도는 _____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쉬운 _____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이도의 목소리와 어조가 _____는 것은 이러한 뜻을 _____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무척 _____것, 그리고 이러한 _____을 _____하지 못하는 _____들에게 자신의 _____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_____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 ‘이 부분을 통해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글자를 만들겠다는 이도의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도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매년 선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_____모르는 _____의 _____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 _____의 _____에 대해 잘 모르던 _____이 _____과 직접 _____하고자 하는 _____의 뜻을 알고 그 _____에 _____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 드라마 대본에서는 인물의 _____만으로 _____과 _____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려 줌.)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론이 막혔다 쓴 것이오!(‘이도는 백성의 말이 관료를 거치면 왜곡, 편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삼봉**()은!

해강:(의 말에 아무런 을 하지 못함.)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론을 띄워 주고 싶고.(가 를 만들겠다고 판단한 이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이도의 말하기 방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본인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채윤: (보는 데서 cut.)

S#14 경복궁 일각 (낮, S# 14~16 **몽타주**(나 구성의 한 방법. 촬영한 화면을 때에 붙여서 하나의 하고도 새로운 이나 으로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화면. **촬영 기법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을 떼어 붙여서 긴밀하게 연결하는 편집 구성의 한 방법이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한곳에 관리들 모여 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새로운 글자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 ①. **글자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들과 그 입장을 제시하는 선지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새로운 를 반대하는 또 다른 . ‘S#14에서 ‘장은성’은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반대 이유와 관련된 문제가 전년도에 이어 출제되었습니다.**) (cut.)

이도: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들에게 새로운 가 가 되지 않는 이유)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cut.)

S#15 성삼문 술 마신 곳 (낮)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이순지(새로운 글자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 ②): **《삼강행실도》**(시대에 설순 등이 왕명에 따라 펴낸 책. 와 의 서적에서 모범이 될 만한 , , 들을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함.)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cut.)

이도: **(버럭)** 네놈이 선비냐? 네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나?**(과 하려는 의지로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하였으나 그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신하의 말을 들은 의 반응. 신하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이 ‘버럭’ 화를 내는 세종의 모습이 드러남. / 가 중시하는 것: 백성의 를 것, 이 에게 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 과 이 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 **이도의 생각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cut.)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2)(2) 뿌리 깊은 나무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제재 개관

갈래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성격	[사실적]
제재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를 둘러싼 갈등
주제	①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왕 [이도]의 의지 ②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담긴 애민(愛民) 사상
배경	• (시간) 조선 [태종~세종] 때 • (공간) 주로 조선 초기 [궁궐] 및 [반촌]
특징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왕과 대립하던 [가상]의 비밀 조직을 등장시켜, 보는 [재미]를 더하였음. • 이도의 [성장] 과정과 고뇌, [열정]을 개성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금인 [세종]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켰음.

2. 글의 구성과 작품 해제

• 해제

「뿌리 깊은 나무」는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것으로, 각색 과정에서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하고 [반포]하는 일을 기획한 [세종]이 그러한 선택과 결정, 실행을 하기까지 어떤 [역경]들을 겪었는가를 극화한 작품임.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를 반대했던 세력을 설득하고, [우리] [글자]를 만들어 [백성]에게 가르쳐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의 [의지]가 얼마나 [질신했]는가를 잘 보여 주는 장면에 해당함.

• 구성

제16부	S#13~ S#17	글자 창제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이도]의 노력
	S#55~ S#59	[새] [글자]의 [위력]을 알고 글자의 [반포]를 막으려는 [반대파]의 모습

3. 등장인물의 이해

이도	• 시위하는 [유생]들을 피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함. :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 쉬운 우리 [글자]를 만들어 백성과 소통하고자 함. : [애민] 정신을 지님.
해강	[성리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인물로, [유생]들을 대표함.
가리온	한글이 [한자]와는 달리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임을 알고 충격을 받음. : 이도와 이신적의 거래(새 [글자] 반포를 허용하는 대신 [집현전] 폐지를 요구)를 막고자 함.
장은성, 이순지, 심종수, 황희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신하들. 사대부가 국가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세종]을 따르는 집현전 학자들과 대립함.
채윤	[글] 모르는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 태종에 의해 가족이 사망하여 임금을 죽이기로 결심하나, 백성을 향한 이도의 마음에 [감동]해 세종을 암살하려는 개파이를 죽이고 자신 또한 죽음.

TEST 1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나리오, □라마 □본
성격	□실적
제재	훈민정음 □제와 □포를 둘러싼 갈등
주제	① 소통을 통해 새로운 □치를 하고자 하는 왕 □도의 의지 ② 훈민정음 □제와 □포에 담긴 애민(愛民) 사상
배경	• (시간) 조선 □종~□종 때 • (공간) 주로 조선 초기 □궐 및 □촌
특징	• 역사적 □실을 바탕으로 하여 왕과 대립하던 □상의 비밀 조직을 등장시켜, 보는 □미를 더하였음. • 이도의 □장 과정과 고뇌, □정을 개성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금인 □종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켰음.

2. 글의 구성과 작품 해제

• 해제

「뿌리 깊은 나무」는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것으로, 각색 과정에서 □민정음을 직접 □제하고 □포하는 일을 기획한 □종이 그러한 선택과 결정, 실행을 하기까지 어떤 □경들을 겪었는가를 극화한 작품임.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민정음 □제와 □포를 반대했던 세력을 설득하고, □리 □자를 만들어 □성에게 가르쳐 소통하고자 했던 □종의 □지가 얼마나 □실했는가를 잘 보여 주는 장면에 해당함.

• 구성

제16부	S#13~ S#17	글자 창제에 □대하는 이들을 □득하고자 하는 □도의 노력
	S#55~ S#59	□ □자의 □력을 알고 글자의 □포를 □으려는 □대 파의 모습

3. 등장인물의 이해

이도	• 시위하는 □생들을 피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함. : □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 쉬운 우리 □자를 만들어 백성과 소통하고자 함. : □민 정신을 지님.
해강	□리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인물로, □생들을 대표함.
가리온	한글이 □자와는 달리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임을 알고 충격을 받음. : 이도와 이신적의 거래(새 □자 반포를 허용하는 대신 □현전 폐지를 요구)를 막고자 함.
장은성, 이순지, 심종수, 황희	훈민정음 □제에 □대하는 신하들. 사대부가 국가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종을 따르는 집현전 학자들과 대립함.
채윤	□ 모르는 □성의 입장을 □변하는 인물. 태종에 의해 가족이 사망하여 임금을 죽이기로 결심하나, 백성을 향한 이도의 마음에 □동해 세종을 암살하려는 개파이를 죽이고 자신 또한 죽음.

TEST 3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 □□□ □□
성격	□□□
제재	훈민정음 □□와 □□를 둘러싼 갈등
주제	① 소통을 통해 새로운 □□를 하고자 하는 왕 □□의 의지 ② 훈민정음 □□와 □□에 담긴 애민(愛民) 사상
배경	• (시간) 조선 □□~□□ 때 • (공간) 주로 조선 초기 □□ 및 □□
특징	• 역사적 □□을 바탕으로 하여 왕과 대립하던 □□의 비밀 조직을 등장시켜, 보는 □□를 더하였음. • 이도의 □□ 과정과 고뇌, □□을 개성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금인 □□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켰음.

2. 글의 구성과 작품 해제

• 해제

「뿌리 깊은 나무」는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것으로, 각색 과정에서 □□□□을 직접 □□하고 □□하는 일을 기획한 □□이 그러한 선택과 결정, 실행을 하기까지 어떤 □□들을 겪었는가를 극화한 작품임.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 □□와 □□를 반대했던 세력을 설득하고, □□ □□를 만들어 □□에게 가르쳐 소통하고자 했던 □□의 □□가 얼마나 □□했는가를 잘 보여 주는 장면에 해당함.

• 구성

제16부	S#13~ S#17	글자 창제에 □□하는 이들을 □□하고자 하는 □□의 노력
	S#55~ S#59	□ □□의 □□을 알고 글자의 □□를 □□□는 □□□의 모습

3. 등장인물의 이해

이도	• 시위하는 □□들을 피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함. : □□□□인 성격의 소유자 • 쉬운 우리 □□를 만들어 백성과 소통하고자 함. : □□ 정신을 지님.
해강	□□□□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인물로, □□들을 대표함.
가리온	한글이 □□와는 달리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임을 알고 충격을 받음. : 이도와 이신적의 거래(새 □□ 반포를 허용하는 대신 □□□ 폐지를 요구)를 막고자 함.
장은성, 이순지, 심종수, 황희	훈민정음 □□에 □□하는 신하들. 사대부가 국가의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을 따르는 집현전 학자들과 대립함.
채윤	□ 모르는 □□의 입장을 □□하는 인물. 태종에 의해 가족이 사망하여 임금을 죽이기로 결심하나, 백성을 향한 이도의 마음에 □□해 세종을 암살하려는 개파이를 죽이고 자신 또한 죽음.

TEST 4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_____, _____
성격	_____
제재	훈민정음 _____와 _____를 둘러싼 갈등
주제	① 소통을 통해 새로운 _____를 하고자 하는 왕 _____의 의지 ② 훈민정음 _____와 _____에 담긴 애민(愛民) 사상
배경	• (시간) 조선 _____~_____ 때 • (공간) 주로 조선 초기 _____ 및 _____
특징	• 역사적 _____을 바탕으로 하여 왕과 대립하던 _____의 비밀 조직을 등장시켜, 보는 _____를 더하였음. • 이도의 _____과정과 고뇌, _____을 개성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금인 _____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켰음.

2. 글의 구성과 작품 해제

• 해제

「뿌리 깊은 나무」는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것으로, 각색 과정에서 _____을 직접 _____하고 _____하는 일을 기획한 _____이 그러한 선택과 결정, 실행을 하기까지 어떤 _____들을 겪었는가를 극화한 작품임.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_____와 _____를 반대했던 세력을 설득하고, _____를 만들어 _____에게 가르쳐 소통하고자 했던 _____의 _____가 얼마나 _____했는가를 잘 보여 주는 장면에 해당함.

• 구성

제16부	S#13~ S#17	글자 창제에 _____하는 이들을 _____하고자 하는 _____의 노력
	S#55~ S#59	_____의 _____을 알고 글자의 _____를 _____는 _____의 모습

3. 등장인물의 이해

이도	• 시위하는 _____들을 피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함. : _____인 성격의 소유자 • 쉬운 우리 _____를 만들어 백성과 소통하고자 함. : _____정신을 지님.
해강	_____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인물로, _____들을 대표함.
가리온	한글이 _____와는 달리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임을 알고 충격을 받음. : 이도와 이신적의 거래(새 _____반포를 허용하는 대신 _____폐지를 요구)를 막고자 함.
장은성, 이순지, 심종수, 황희	훈민정음 _____에 _____하는 신하들. 사대부가 국가의 _____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_____을 따르는 집현전 학자들과 대립함.
채운	_____모르는 _____의 입장을 _____하는 인물. 태종에 의해 가족이 사망하여 임금을 죽이기로 결심하나, 백성을 향한 이도의 마음에 _____해 세종을 암살하려는 개파이를 죽이고 자신 또한 죽음.

O / X 문제

【1~20】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십시오.

1. 이도는 백성을 부추겨 사대부의 권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O / X)
2. 혜강은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일이 유학의 도를 버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O / X)
3. 이도는 언로를 띄워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임금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O / X)
4. 이도는 상대방 질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O / X)
5. 이도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말에 끌어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O / X)
6. 서술과 묘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O / X)
7. 이도는 새로운 글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리라고 믿고 있다. (O / X)
8. 이도는 한글 창제에 대한 뜻을 고수하기 위해 유학에서 중시하는 덕목을 부정하는 인물이다. (O / X)
9. 가리온은 사대부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이다. (O / X)
10. 가리온은 글자를 반포하기로 한 이도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O / X)
11. ‘이순지’는 사람의 자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O / X)

12. ‘심종수’는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들에게 새 글자를 전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O / X)
13. ‘황희’는 ‘이신적’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다. (O / X)
14. 이 작품은 인물의 동작과 표정을 지시문으로 표현한다. (O / X)
15. 이도가 혜강을 설득하며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강조하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O / X)
16. 이 작품은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 / X)
17. 연두는 새 글자를 배운 지 이틀이 되었지만, 가리온이 한 말을 바로 땅에 받아 적었다. (O / X)
18. 이도는 관료들이 백성의 뜻을 임금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글자가 언로를 띄워 주어 유학의 덕목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O / X)
19. 한가 높은 새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있지만, 가리온은 새 글자를 읽고 쓸 줄을 모른다. (O / X)
20. 이 작품은 희곡에 비해 시·공간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큰 편이다. (O / X)

1. X	2. O	3. O	4. O	5. O	6. X	7. X	8. X
9. O	10. X	11. O	12. X	13. X	14. O	15. O	
16. X	17. O	18. O	19. O	20. X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2)(2) 뿌리 깊은 나무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이도(세종대왕의 이름)는 왕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대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의 몇몇 학사들과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그러다 그 사실이 알려져 유생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 제16부 -

S#13 광화문 앞 (낮)

혜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혜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혜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좋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cut.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 자. 앞엔 혜강이 있다.

혜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화면은 ‘무’ 자

보이며)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도: (보고)

해강: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이옵니다. 헌데……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도: …….

해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오, 없소.

해강: (그럼 그렇지.)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시오. (하며 궤도로 간다.)

cut. 궤도에 “作開言路 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해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해강: (멈칫)

모두 (멈칫)

이도: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 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해강: …….

이도: 이는 말시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점점 강한 목소리로)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오! 삼봉은!

혜강: …….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띄워 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채윤: (보는 데서 cut.)

S#14 경북궁 일각 (낮, S# 14~16 몽타주)

한곳에 관리들 모여 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cut.)

이도: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cut.)

S#15 성삼문 술 마신 곳 (낮)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이순지: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cut.)

이도: (버럭) 네놈이 선비냐? 네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cut.)

S#16 경북궁 어느 곳 (낮)

상소를 쓰고 있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심종수: 《농사직설》을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하면 되

는 것이옵니다. (cut.)

이도: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 관리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더 피폐하게 한다. (cut.)

등등 계속 이어지는 이도의 강변 몽타주.

S#17 글자방 (낮)

힘들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는 이도. 근지, 목야, 덕금, 지밀 따라 들어오고…….

이도: 어이구, 힘이 달리는구나. 고기 좀 먹어야겠다, 많이.

지밀상궁 이미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근지: 전하, 얼마나 힘이 드시옵니까.

이도: …….

근지: 그래도 오늘 전하께서 오랫동안 논쟁하셨으니, 다 설득될 것이옵니다.

이도: (한숨 쉬며) 아직 큰 게 남았다.

목야: 부제학 최만리 영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도: 그래.

덕금: 대제학 말씀으로는, (글자방 끝에서 끝을 가리키며) 여기서 저기까지 될 만큼 길게 쓰신다 합니다.

목야: 예, 계속 종이를 더 가져오라 하시면서 말이옵니다.

덕금: 전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셔서 만든 것을, 어찌 다들 그러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이도: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그러게 말이다. 부제학은 얼마나 또 조근조근 따지려는지, 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사대부가 국가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밀 결사 조직 ‘밀본’ 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재상 총재제’를 관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현전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밀본’의 중심인물(본원)인 ‘가리온’은 세종의 새 글자 반포를 허용하는 대신 집현전 폐지를 요구하는 거래를 계획한다.

S#55 반촌 한구석 (낮)

한가 نوم이 어느 쪽을 보면 옆의 가리온도 한가 نوم이 보는 곳을 보는데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마주 보고 있는 개파이와 연두. 나뭇가지로 땅에 뭔가를 쓰며 놓고 있다.

개파이가 손바닥으로 흙을 지우더니, 새로 쓴다.

“카르페이”. 그 앞에 연두가 쓴 글자도 보인다.

“난 밥을 먹었다.”

가리온, 놀라서 본다.

한가 نوم: (자기도 믿기지 않아) 개파이는 자기 이름을 쓰고, 연두는 이 글자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가리온: (쿵!) ……!

한가 نوم: 이틀 만입니다!

가리온: (쿵! 천천히 개파이에게 다가가 이름 쓴 걸 가리키며) 이게 뭐냐.

개파이: 내…… 이름이다.

가리온: 어떻게…… 읽는 것이냐?

개파이: (한 글자씩 짚으며) 카…… 르…… 페…… 이…….

가리온: 진정…… 이틀 사이에……?

하는데 연두, 옆에서 뭔가를 쓰고 있다. 가리온 고개 돌려, 연두가 쓴 것을 보는데, 바닥에 있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진정 이틀 사이에”가 نوم도 보고 놀란다.

한가 نوم: (경악하여) 아니, 이럴 수가…….

가리온: 어찌 그러는가?

한가 نوم: 지금 본원이 하신 말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진정…… 이틀…… 사이에’.

가리온: (충격과 경악) ……! (팡! 하는 효과음이나 음악)

한가 نوم: (놀라움으로 글자와 본원 번갈아 보면)

가리온: (놀라움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쓴 것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S#56 반촌 내 도축소 (낮)

가리온, 탁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 한가 놈의 표정도 심각하다.

가리온: (멍하게 놀라움에) 모든 사람이…… 글자를 쓰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가 놈: 예?

가리온: (멍하게 놀라움에) 그것은 어떤 세상일까?

한가 놈: 글썄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라.

가리온: 글자는 무기다. 칼보다, 창보다, 유황보다 무서운 무기다. 사대부가 사대부인 이유는! 양반집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혈통 때문이 아니라, 글을 알기 때문에 사대부인 것이야.

한가 놈: 예, 물론입니다.

가리온: 그게 사대부의 권력이요, 힘의 근거다. 현대 이 글자라면, 모두가 글자를 읽고 쓰는 세상이 온다면…… 조선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세상은 혼돈에 가득 차고…… 이 조선의 뿌리인 사대부가 무너질 것이야!

한가 놈: 어찌해야 합니까?

가리온: (결연하게) 막아야지. 이 글자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한가 놈: (떠오른 듯) 허나……! 이미 오늘! 이신적이 거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가리온: (쿵!) ……!

S#57 궁 일각 (낮)

가는 황희와 이신적.

이신적: (허허 웃으며) 오늘은 전하께서 우리 신료들의 뜻을 가납하시지 않겠습니까?

황희: 그러셔야지…….

웃으며 가는 황희와 이신적.

S# 58 다른 궁 일각 (낮)

이도, 정인지, 무휼과 함께 가는데, 오는 정득룡.

정득룡: (예를 취하며) 방금 영상 대감과 우상 대감이 등청하였다는 보고입니다.

이도: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그래, 가자.

S# 59 반촌 내 도축소 (낮)

S# 56 연결.

가리온: (위기감 가득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며) 이도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신적을 막아야 해! 당장 중지시키거라, 당장!

웃으며 가는 이도와 심각한 가리온에서 엔딩.

핵심 정리

Blank area for core summary content.